

2017년 제7차 청소년분과 회의록

일 시	2017년 07월 14일(금) 10:00 ~ 12:00			
장 소	한국청소년진흥재단			
참석자 7/17 공(0/2) 민(7/15)	성 명	확인	성 명	확인
	임정완(수원시 청소년지원팀)	×	박병준(청소년희망등대센터)	×
	김희순(수원탁틴내일)	○	송경순(수원교육지원청)	○
	이수진(우만종합사회복지관)	○	남영후(권선청소년상담실)	×
	권수정(연무사회복지관)	○	이한길(수원YMCA)	○
	기유리(무봉종합사회복지관)	○	김혜영(수원시 청소년지원팀)	×
	김광무(월드비전 경기지역본부)	×	정혜진(수원YWCA)	×
	김선향(우리누리청소년회)	×	조기연(한국청소년진흥재단)	×
김용주(수원시청소년문화센터)	×	채상훈(영통종합사회복지관)	×	
김원숙(수원시청소년성문화센터)	○			
회의주제 및 안건	<p>1. 보고 및 공유</p> <p>가. 전차 회의결과 보고</p> <p>나. 기관의 행사 및 사업 공유</p> <p>2. 논의사항</p> <p>가. 신규추천위원 위촉승인 논의</p> <p>나. 인성교육 진흥법 - 손경순, 권수정 위원</p> <p>다. 하반기 분과 공동사업 추진 논의</p> <p>3. 기 타</p> <p>가. 차기회의 일정</p>			
회의결과	<p>1. 보고 및 공유</p> <p>가. 전차 회의결과 보고</p> <p style="padding-left: 20px;">- 이견없음</p> <p>2. 논의사항</p> <p>가. 신규추천위원 위촉승인 논의</p> <p style="padding-left: 20px;">- 이은희 위원 위촉 승인</p> <p>나. 인성교육 진흥법 - 송경순, 권수정 위원</p> <p style="padding-left: 20px;">- 인성이란 것이 교육 가능할 것인가?</p> <p style="padding-left: 40px;">: 굳이 도덕이란 과목도 있고 모르고 아는 것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됨. 따라서 인성 교육을 하는 것이 어떠한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 생각됨.</p>			

: 인성교육을 하지 않는 것보다는 하는게 좋다고 생각함. 최근에는 청소년들의 인성교육을 가정의 역할로만 치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학교 교육을 할 필요가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시간이 너무 많음. 학교를 다니면서 사색하거나 자신의 꿈, 진로 등을 충분히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음. 경쟁을 해야 하고 이겨야하는 교육환경에서 인성까지 교육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고 생각됨. 교육시간을 대폭 축소하고 청소년 스스로가 자신의 인성과 미래, 방향성 등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함.

: 사회가 변화하면서 가정의 역할수행 능력이 저하되고 있음. 이에 공교육을 통해 바른 인성을 심어줄 필요가 있음. 하지만 인성이라는 것이 가르쳐 주는 것으로는 분명 한계가 있는 것 또한 사실임. 기본적인 교육을 진행하되 청소년 스스로가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아동청소년 중 “인성이 되었네!” 하는 사람은 어떤 청소년들일까요?

: 자기주도성을 가진 청소년이 인성이 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음.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은 말 그대로 주입식 교육 형태로 자칫 올바른 인성과 가치관 또한 정답처럼 청소년들에게 주입되고 있을 수 있음. 이러한 환경 속에서도 자기 주도성을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동하는 청소년이 인성을 갖춘 청소년이라고 생각됨.

- 기타 의견

: 최근 청소년을 대상으로 돈을 줄테니 감옥에 갈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했고 그 결과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감옥을 선택했다며 청소년들의 인성을 문제시하는 기사가 있었음. 이는 비단 청소년들만의 문제가 아니며, 질문 자체가 정해진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오류가 있었음.

: 학교에서 징계사유로 특별교육을 받는 청소년들과 이야기 했을 때 유독 학교에서만 하지 말라는게 너무 많다는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음. 학교를 벗어나면 크게 문제되지 않는 행동들도 학교에서는 문제가 되고 제재를 받는다는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학교에서는 아이들의 인성과 행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경향이 있는 듯 하며 반대로 지역사회에서는 책임감 있는 어른들이 부족하다고 생각되었음.

: 아이들의 인성이 제대로 갖추어 지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 고민하고 연대해야 한다고 생각함. 학교에서 아무리 인성교육을 진행한다고 해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그 효과성이 크지 않을 수 있음. 한 아이를 기르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인디언의 속담처럼 인성 또한 학교, 가정, 지역사회가 함께해야 가능할 것임.

다. 하반기 분과 공동사업 추진 논의

- 당초 계획(안) 논의

: 6월까지 월별 청소년 정책 스터디 진행

- : 6월 회의에서 지역사회와 공론화 해야 하는 아젠다를 선정하여 지역 토론회 또는 간담회 등으로 준비하여 하반기에 추진
- 지역사회 공론화 아젠다 논의
 - : 2~6월 5가지 아젠다 중 해당월 논의 내용에 기반하였을 때 청소년 참여권 등에 대한 추가 논의 및 지역사회와 고민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음.
 - : 당초 계획은 스터디 추진한 아젠다 중 1개를 선택하여 하반기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논의되었으나 여러 아젠다를 스터디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청소년을 둘러싼 다양한 객체(학교, 청소년기관, 당사자, 가정, 지역사회 등)가 함께 어떻게 네트워크를 가져가고 청소년을 어떻게 바라보며 길러야 하는지 고민하는 장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음.
 - : 청소년 정책 및 지원 체계 활성화를 위한 지역 네트워크 구축 방안(가제) 등을 다양한 단위에서 각자 고민하고 있는 점들을 공유하고 그 안에서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는 자리를 마련하자는 의견이 있었음.
 - : 금월 분과회의 참석인원이 많지 않은 관계로 위 두가지 사안을 투표에 붙여 다수가 선택한 주제로 하반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할 것임.

<논의 결과>

위 두가지 논의사항에 대해 SNS를 활용하여 분과원 다수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반기 분과공동사업 추진

3. 기 타

가. 차기회의 일정

- 일시 : 2017. 7. 14.(금) 10:00
- 장소 : 한국청소년진흥재단 (불가할 경우 수원시휴먼서비스센터)

회의사진



기 타